

제4장. 합친말의 적기

제14항.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 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례1: 걸잡다, 낮보다, 눈웃음, 돋보다, 물
오리, 밤알, 손아귀, 철없다, 꽃철,
끝나다

례2: 값있다, 걸늬다, 몇날, 빛나다, 칼
날, 팔알, 훗내

《암, 수》와 결합되는 동물의 이름이나 대상은 거
센소리로 적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는다.

례: 수돼지, 암돼지, 수개, 암개, 수기와, 암기와

제15항. 합친말에서 오늘날 말뿌리가 뚜
렷하지 않은것은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.

례: — 며칠, 부랴부랴, 오라버니,
이틀, 이태
— 마파람, 휘파람, 좁쌀, 안팍

제16항. 합친말을 이룰 때에 빠진 소리는 빠진대로 적는다.

례: 다달이, 마소, 무님이, 부나비,
부님이, 부삼, 부손, 소나무, 수지,
화살, 여닫이

제17항. 합친말에서 앞말뿌리의 끝소리 《ㄹ》이 달긴소리로 된것은 《ㄷ》으로 적는다.

례: 나흔날, 사흔날, 선달, 숯가락, 이
튼날